

프랑스 출판계에 환경도서 바람 분다

일반대중 위한 교양서 급증...어린이용 환경총서도 인기

환경문제 만큼 전세계인들의 공통적이고도 집중적인 관심사도 드물 듯한데, 최근 프랑스의 출판가에는 이같은 범세계적인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자연환경의 보호에 관한 갖가지의 저술과 생태학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 분야의 출판물이 89년도에는 78종 91년에는 103종이었던 것에 비해 93년도에 와서는 불과 3,4개월 남짓한 사이에 벌써 142종이나 출간되고 있어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들 환경도서들은 대체로 전문적이라기보다 일반대중들을 위한 '안내 총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블라쇼, 니슬레, 보르다스, 나땅, 아띠에 출판사 등이 최근의 붐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출판사들이다.

이같이 쏟아지고 있는 환경도서 가운데는 미처 글자도 깨우치지 전의 3, 4세 유아들에게서부터 우리식으로 하자면 국민학생 정도에 해당하는 10세 전후의 '진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용 환경도서가 100여종 넘게 차지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린이시절부터의 조기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어린이용 환경총서는 ①환경보호 ②인간과 그 환경 ③대기 ④하늘 ⑤땅 ⑥동물 ⑦식물 ⑧숲 ⑨산 등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 '4세부터' '6세부터' '8세부터' '10세부터' '11세부터' 연령에 맞게 읽어야 할 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제의 다양함도 그렇거니와 독자들에게 대한 섬세한 배려는 높이할 만하다.

이들 어린이용 환경총서는 내용의 이해를 도우는 삽화와 생생한 사진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인데, 우선 감마출판사가 내놓은 '환경보호' 시리즈의 목록을 보면 「바다의 오염」 「오염된 땅」 「핵 폐기물」 「독가스 폐기물」 「가정 폐기물」 「사라져 가고 있는 생물들」 「변모하는 풍경」 「S.O.S. 지구」 등의 책에서 자연환경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글과 다양한 시각매체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인간과 그 환경' 편에는 '장래에 생태학자가 될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 정보서'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생태학' 도서를 비롯해서 '사막' 「바람」과 같이 자연현상을 소개하는 일련의 도서들, 그리고 중세에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정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길들여진 자연」, 장래에 탐험가가 되기를 원하는 어린

이들을 위한 상세한 안내서 「자연」, 위기에 처한 유럽의 강의 실상을 파헤친 「다뉴브강의 비밀들」 등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위험에 처한 동물들」 「누가 꼬집고 누가 찢었나?」 「목숨이 위태로운 고래」 「코끼리를 구합시다」 「아주 쉬운 나무 안내서」 「숲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등 환경교육에 역점을 둔 다수의 흥미로운 목록들을 비롯해, 총서에는 식물도감이나 동물도감과 같이 자연 및 생물들의 실상과 특징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해주는 내용들도 다수 수록돼 있어 자연공부와 환경보호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같은 특성 때문인지 출간된 책들은 국민학교에서 '발표용 도서'로 선정되는 등 보충교재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 도서의 위세가 상당하다 해서 어른들을 위한 환경도서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관심이 있기는 해도 그 관심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지는 않으며, 그런 까닭에 환경관련 도서들이 실제로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저간의 통설로 굳어왔다. 하지만 파리에 있는 시골집(La maison Lustigue) 출판사는 신선한 기획으로 이같은 세간의 속설을 뒤엎고 있다. 이 출판사는 독자층을 '도시인'으로 한정하고, 도시인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를 겨냥하여 원예와 식물에 관한 책을 기획했는데, 그것이 뜻밖의 성공을 거둔낸 것이다. 이 출판사에서 펴낸 각종의 원예도서와 식물에 관한 정보들이 발코니를 가진 도시인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이다.

물론 이런 책들은 소극적인 의미의 환경도서에 속하는 것이지만, 지구환경을 둘러싸고 생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예견한 「위기에 처한 여러 종들의 아틀라스」나, 사라져가고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실태를 르포한 「파충류와 양서류」, 그 운명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코끼리들의 생존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본 「코끼리」, 마지막 남은 고래를 찾아 북대서양을 횡단한 기록인 「고래의 사계」, 90인의 전문가들이 진단한 「세계 속의 환경의 위상」, 인간들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은 특수 종들에 대한 연구서인 「강치와 포유동물, 바다표범, 海牛류 가이드」, 종의 소멸이 인위적인 것인지 진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인지를 살핀 「종의 소멸에 관한 논의」, 대기의 조직에



최근 프랑스에는 환경도서가 크게 붐을 이루고 있다. (자료제공 : 프랑스큐니케이션)

관심있는 일반독자를 위한 「들이마시고, 호흡하고, 내쉬는 대기」, 소음이 인체와 정신에 끼치는 해독을 살핀 「소음」 등 성인들을 위한 환경도서의 수 역시 주제의 다양함 만큼이나 폭넓게 소개되고 있다.

흔히 환경문제는 경제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심각함의 완급을 조정하거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정치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발간되는 환경문제 관련 도서들은 생태계의 파괴정도를 알리는 데서 나아가 이를 보호하고 복원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의미있는 제안서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지구를 구해내기 위한 환경학적 「마살플랜」에 비견되곤 하는 미부통령 앨 고어의 「지구를 구하는 것」이 번역돼 나온 데 이어 경제학자 일랭 리피즈가 정치환경학의 윤리와 사회적 전통에 대해 서술한 「녹색희망, 정치환경학의 미래」를 내놓았고, 동유럽 공산주의가 퇴조한 후 급부상하고 있는 녹색당에 대해 고찰한 「동유럽의 정책과 환경」을 비롯해 환경복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머를 곁들여가며 기술해 놓은 「환경학자들, 공통된 하나의 프로그램」 등이 그런 범주에 드는 최근 출간되었거나 곧 근간될 목록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도서들은 대부분이 서점의 「자연」 코너에 널찍한 공간을 차지하여 진열돼 있는데, 일부 정치환경학 도서들의 경우는 간간히 「정치」 코너에 분류돼 있기도 해 아직까지 정치문제와 환경문제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인식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그래서 이같은 환경도서의 붐이 환경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93세에 신작 펴낸 줄리안 그린

9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성한 집필을 계속하고 있는 프랑스 문학계의 거장 줄리안 그린의 「일기」(Journal)가 곧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된다. 그는 19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써왔는데, 그것은 이미 14권의 책으로 나온 바 있고 그래서 근간될 일기는 15번째 권이 되는 셈이다.

남들 같았으면 펜을 놓았어도 이미 수십년도 더 전일 나이인데도 변함없이 글쓰기의 성실성을 견지하고 있는 이 노작가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기를 쓰는 일 외에도 엄청난 집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에 잡혀 있는 출판 계획만도 9월의 「일기」 출간에 이어 10월에는 「레비아탄」(Léviathan)과 「내가 당신이라면」(Si J'étais vous)의 재판을 내놓을 계획이고, 새로운 희곡 작품도 올해 출판을 예정으로 한창 집필중이다. 이밖에도 첫권이 650,000부나 팔려나간 「남쪽 별들」(Etoiles du Sud) 연작도 매일 거르지 않고 집필하고 있으며 역시 연작인 「먼 나라」도 계속 쓰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결코 허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일과계획표를 보면 된다. 그는 아침부터 집필실의 고요 속에서 홀로 글을 쓰며, 매일 11시에서 13시까지의 시간은 일기쓰기에 배려해 놓고 있다. 그는 집필실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 "쓰는 것은, 현재 내 삶의 이유입니다" "글쓰기가 내 생의 고비고비마다 세상의 탁류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 게 사실이지

요. 글쓰기가 내게 균형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그것은 내게 균형을 '발견하게' 도와주었습니다"라고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그는 글쓰는 일을 통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극심한 자기분열에서 벗어나 현실 밖의 신을 향해 '상승'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승에의 열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유혹에 무력하게 이끌려갔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신의 도움을 받아 육체를 포기할 결심도 여러 번 했었다고 고백한다.

영혼과 육체의 갈등과 분열상은 줄리앙 그린 작품의 가장 커다란 주제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애초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타났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고통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되물으며 글쓰기를 통해 고통을 진정시켜온 작가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일기」에서 독자들은 그것을 보다 극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출간될 희곡이나 연작의 신간들은 신의 도움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60세 이후의 작가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92세의 그린은 현재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몹시 분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 넘치는 또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그는 현재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클래식 음악과 달리,

로망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과 조각 사이에 둘러싸여 씩씩이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외치는 전한다.

눈길끄는 이색 전문도서관

프랑스에는 작고한 특정작가의 이름을 내건 도서관이나 특정 주제의 책들을 비치해 놓은 전문도서관이 적지 않은데 근작 「파리의 책(Livre de Paris)」은 지난해 문을 연 '장 자크 루소 종합도서관'을 비롯해 '지옥 도서관' '터키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발달한 도서관 문화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상베리에 세워진 '장 자크 루소 종합도서관'은 루소가 1732년부터 1742년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전에도 '퐁지에 후작 도서관'과 '예수회과 학교 도서관' 두 군데가 일련의 루소 저작들을 비치해두고 루소연구자들을 도왔으나 이번 상베리에 세워진 루소 종합도서관의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 도서관은 6,150m²의 총면적에 250,000권(이 가운데 70,000권은 루소와 그다지 관계없는 교양도서이지만)의 장서를 비치하고, 300종의 정기간행물, 10,000종의 음향자료, 2000여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비롯해 대형스크린과 음악감상시설도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루소 '종합' 도서관이라 할 만하다.

일주일 총 40시간의 개방시간(화, 수, 금-10시부터 19시까지, 목-15시부터 20시까지, 토-10시부터 18시까지) 또한 종래의 어느 전문도서관보다 길어 앞으로 루소 전문가와 관

심있는 많은 시민들의 연구의욕과 독서열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도서관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는데 외관상으로도 까레꾸리알-행정·상업상의 요지로 앙드레 말로 문화관과 국제대학촌을 끼고 있다 -을 이끄는 '뱃머리'다운 위용을 갖추고 있는 이 도서관은 지난해 10월 시민들에 개방된 이후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그 뒤밭의 「헤르마프로디토스, 생식기, 여자들의 해산 등에 관한 논고」(1880), 마그드 몽띠외의 「성병론」(1718년 4판)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1881), 앙리 세비유의 「빠리와 런던에서의 매음」(1877년 3판), 「마약에 의한 착란, 연애소설」(1914),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베르농 쉐리방의 「나는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으러 가리」 등.

이런 제목의 다소 낯뜨겁고, 외설스럽고, 의문스러우면서도 또한 궁극적인 이런 책들을 보기 위해서는 라지오에 위치한 이른바 '지옥 도서관'으로 가야 한다. 이 책들은 현재 '라지오 시립도서관에 안성마춤인 작은 지옥'이라는 제목의 도서목록에 일괄적으로 등재돼 있다. 이 도서목록을 만들기 위해 라지오 시립도서관측은 현재 44권까지 나와 있는 「미풍양속을 거스르는 것들」이란 이름의 조사서를 참고했다고 한다.

'라지오 시립도서관에 안성마춤인 작은 지옥'이란 이름의 이 도서목록에는 16,700여명 작가의 70,000여권의 소설 및 희곡작품, 저술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돼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누구나 읽어도 좋은 것을 TB,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것을 B로, 도덕적·지적·종교적으로 충분히 수양된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것을 B'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책은 D로, 마지막으로 폐기해야 할 정도로 해로운 작품을 M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레옹-펙스에 있는 '터키 도서관'은 특정주제를 내건 전문도서관이라는 점과 함께 그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도서관의 문화공간화를 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초 '터키 도서관'에서는 터키 문학특별전과 관련 사진전을 비롯해, 작가들과 영화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이와 함께 터키 문학과 터키 음악에 관한 카탈로그를 제작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파리에 있는 여러 시립도서관들은 올해 약 25억 500만프랑의 기금을 조성, 다른 나라의 도서관들과 교류할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시민들에게 유익한 도서 정보나 문화관련 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는 일련의 시도는 '도서서비스 센터'의 활동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도서서비스센터는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을 상호연결하여 책의 소재지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또 한편 1996년 작 드 베리의 예술학교와 함께 문을 열 전문도서관에는 관련도서 및 여러 예술자료와 제작장비들을 동시에 구비, 미술전문가들은 물론 이 방면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도서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대출해 줄 것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양문예사조

신광균의 7인 공편저, 신국판, 392면, 7,000원

본서의 서술방향은 기존의 문예사조를 단지 시대별로 소개함에 그치지 않고 각 사조의 문학원리에 관심을 두고 작품성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은 프랑스 문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프랑스 문학이 르네상스 문화의 전수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대문학은 물론 현대문학의 위치를 가름할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것이 강점이다.

현대시론

김영철 저, 신국판, 360면, 7,500원

이 책의 집필은 시를 좋아하고, 시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이론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특히 서구이론을 우리의 문학풍토에 맞게, 즉 서구이론의 생경함을 벗어나 우리 시의 해석과 이해에 적합한 이론의 수용과 적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작품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위한 이론보다는 작품이 전제된 이론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필자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원예학원론

김중천 저, 신국판, 양장, 322면, 8,500원

원예작물은 종류도 많고 또 모두가 집약적인 관리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한편 수익성도 높은 작물이다. 재배 기술면에서 일반작물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술향상은 튼튼한 기초지식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은 수익증대와 직결된다.

이 책은 원예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학문적인 기초지식과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게 하였다.

林董(하시다쓰)秘密回顧錄

A.M.Pooley 역을 신복룡·나홍주 역주, 3,800원

이제까지 대한제국멸망사의 외교적 배경은 1905년의 태프트-桂太郎 密約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비록은 일본의 조선병합의 꿈이 이미 對英외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영·일 동맹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 영·일 동맹의 체결 당사자였던 林董의 말을 통해서 당시 국제 사회에서 조선이 어떻게 요리되었는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신국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도서주문 450-3893 FAX: 457-7202